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찰나의 생활을 그냥 여여하게 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그런 걸 아십니까? 아니, 나뿐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곤궁에 빠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차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순간의 놀란 그 마음을 조금 진정을 하고 보면은 눈에서 뼈저린 눈물이 흐르죠. 어떻습니까? 딴 거는 안 그럴까요? 그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부 하러 다니는 것을 그냥 괜히 하러 다니는 걸로 생각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고 예전에도 얘기했죠. 그런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궁금하죠. 궁금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큰 비행기도 공중에서 감쪽같이 없어지고, 큰 바다에서도 감쪽같이 없어지는 이유가 어딨을까요? 그것을 작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건 자석이 아니라 자력에 끌려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 사람까지도 벗어나서 이 세상을 전체 손아귀에 쥐고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계신 데가 없고, 손이 안 가는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이 그렇게, 모습 아닌 그 속에 바로 불종(佛種) 그 자체로서, 바로 불종이라는 이름조차 없는 불종으로 그냥 어디든지, 어디든지 있죠. 그래서 이 공부는 어마어마한 공부면서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렇겠지. 그냥, 어,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단전을 한다 뭐, 호흡을 한다 하는 문제도 만약에 입으로 먹고 똥으로 안 누면 막히죠. 그와 같이 단전호흡을 해서 바깥으로 나쁜 그 기를 모아서 빼지 않는다면 그거는 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되고 마는 그 몸뚱이조차도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생각도 떨어지는데, 뭘 어떡할까요? 이걸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린 영원하기 위해서, 또 영원하게 내가 살 양으로 내 욕심을 채워서 이 공부 하는 게 아닙니다. 천차만별로 돼 있는 어떠한 목신이든 지신이든, 흙에서 나는 거든 나무에서 나는 거든, 공중에서 나는 거든 또는 태에서 나는 거든 알에서 나는 거든, 습한 데서 나는 거든 화해서 나는 거든 이런 것 전체를 다 둘 아니게 한 낚시에 탁 걸어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낚시도 낚시 없는 낚시지 낚시라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또 손 아닌 손이라고 했죠. 생각 없는 그 한생각이 전체를 담아서 건질 수 있는, 자동적으로 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현실로 연구하는 것도 어떠한 연구를 하든지 그건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연구를 너무 딴 데보다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탁 쳐 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미국이 소련보다 높아서도 안 되고 또 소련이 미국보다 높아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깐요.

그 연구들을 하는 마음도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써, 머리로써 연구하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거를 정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신으로 돌아서 가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들어가는 거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계합이 돼서 돌아가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재 보고 듣고 들이고 내고 하는 그 감각으로서 머리를 쓰는 현재의식 자체가 결정짓는 마음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자라는 50%가 돼서 모자라는 물질세계 50%에서 그냥 사는 여러분이 돼 버리고 말죠. 그 생각은 바로 한데 계합된 정신이라야만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계합된 그런 연구인이 있다면 만약에 글을 연구할 때에 그 모든 자료를 같이 넣어서, 예를 들자면 탐지기는 탐지기대로 어떠한 분별만 하게끔 하고, 또 어떤 거를 '어디 있나' 그것만 봤는데 지금은 '어떠한 걸로 썼는가, 어떠한 걸로 만들었는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이것까지도 다 컴퓨터로 나오게끔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더 가면 그것보다도 더 나은 최대의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죠. 인간이 다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은 최대의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이전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뜻을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팔만대장경에 모두 해 놓은 걸 요 사는 데다 꼬작꼬작 붙여 놓으니 이걸 어쩝니까? 저 우주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갖다 넣고 그냥 슬슬 굴리게끔 해 놓질 않고, 슬슬 굴리게 해 놓은 그 경서를 조그마한 데다가 딱 붙여서, 우리 사는 데다가 붙여서 항상 빌게 만들어 놨어요, 항상. 네?

항상 빌면서, 깡통을 들고서 그 깡통에 달라고 빌어요. '반찬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아휴, 밥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아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먹질 못합니다, 관세음보살!' 또 '취직을 못 했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만날 얻으러만 다니는 겁니다. 얻으러 다니게 만들어 놔요! 그래,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가 내 밥 먹는 거지, 누가 나를 먹여 주고 누가 행복을 갖다 주고, 누가 하나요? 그거를 뒤집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참내, 기가 막혀서! '아버지! 저 사람은 몰라서 저렇게 그러는 거니 용서를 해 주옵소서.' 하고 했잖습니까? 예?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소립니다. '에이구,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무슨 죄가 있겠나.'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얘들아, 모두 나를 믿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자' 소리를 안 넣었기 때문에 '모두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 이 예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 줄 알고 온통 그 이름을 가지고 상표를 붙여 놓고는 전부 비는 거야, 또. 아니, 이름들은 모두 상표입니다, 이게. 물건의 상표예요.

그런데 그 상표에 묶여 가지고는 그냥 옴폐부득 못 하고 꽁꽁 묶여서, 창살 없는 감옥이지, 그게 결국은. 그래 가지고 빠지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야. 아니, '물이 깊고 산이 높고 불덩어리가 온통 죄 탄다' 하고 그냥 마귀들이 북적거린다 하더라도 체가 없는 내가 마음이 넓으면, 그냥 다 주워 모아서 여기다가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넣어서 그 아팠던 의식과 모자랐던 의식이

☞ 16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